

총여신관 用

여성운동의 방향성 모색과 다양한 흐름의 생성

여성운동의 방향성 모색과 다양한 흐름의 생성



주최 : '98 여성연대 한.판 기획단

장소 : 동국대학교

일정 : 8월 21일 (금) - 23일 (일)

21일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 전체 토론회

22일 여성운동 대토론회 1차, 2차

각종 문화 행사

23일 여성주의자들을 위한 워크샵

신규 여성실업자에 대한 작은 토론회

그외 작은 마당들, 자료집 교환, 단위소개부스

여성운동의 방향성 모색과 다양한 흐름의 생성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국민대 총
 여학생회, 동국대 여성위원회(준), 동덕여
 대 여성행동위원회, 서강대 성정치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 연대, 서울시립대 총
 여학생회, 서울여대 날개달기, 성균관대 총
 여학생회, 수원대 총여학생회, 아주대 총여
 학생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영남대 총여학
 생회, 외국어대 왕산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홍익대 여
 학생회, 들꽃모임, 들꽃모임,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협의회(먹고살기를 고민
 하는 여대생 모임),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
 성노동권 확보와 성적차이의 윤리 실현을
 위한 살맛나는 세상)

▶ 준비하는 글 · 5

▶ 한 판! 한눈에 보기 · 7

▶ 한 판! 하는 일정알기 · 8

▶ 발제문 모음 · 20

토론회 1. 현실전망과 이후의 방향성 · 21

토론회 2. 여성주의 조직론 · 24

대학여성운동사 (70년대-현재) · 27

학내활동 효과적으로 하기 · 34

▶ 참가단위 소개 · 37

96년 이화여대 대동제에서의 고대생 집단성폭력 사건에 공동 대응을
기점으로 하여 각 학교 여성운동단위 대표자로 구성된
'들꽃모임'이 만들어졌다.

97년 지난 96년 연대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를 계기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가 구성된다.

98년 IMF 구조조정 이후 더욱 흉폭하게 몰아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억압에 대항하여

'살맛나는 세상'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가 발족한다.

그리고 여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흐름이 전국 각지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다.

이것이 96년 이후 대학내 여성운동단위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흐름이다.
이전 여성운동단위들이 각개전투식의 소모전에서 벗어나 조직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연대체를 조직하였다. 여성운동이 전체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만 간
주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여성운동의 성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져 전체 운동의 보
편적 성과물로써 발현·공유되어 세력화 하지 못하고, 여성운동 내의 성과물
로 그치지 않았나 하는 자성 또한 지금의 현실을 말해준다.

지금 우리는 그간의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생성된 담론을 현실속에서 발현
하기 위해, 그리고 운동세력 내에서의 여성운동자체의 세력화를 위해 연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성임을 기반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며, 함께
'여성'이라는 부분에 착목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그 시발
점이 될 것이다.

...준비하는 글...

우리의 운동의 시작은 여성을 정치화하는데 있다. 이것은 단지 여성을 운동을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 운동을 하는 주체로서, 여성으로서 정치화하고, 운동 패러다임을 생성하는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가들의 투쟁이 아닌, 여성의 집단적 정치화를 요구하고 남성적 운동방식에 대한 비판과 여성적 방식의 운동에 대한 고민으로 그 지속적인 운동을 사고할 수 있다.

각 학교의 운동 단위들은 다양한 형태, 운동 방식, 학교 상황, 조직체계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이가 없다면 굳이 '연대'라는 단어를 붙이지도 않을 것이다. 서로간의 차이를 긍정하는 가운데 '연대'라는 의미가 더욱 그 뜻을 찾을 것이다.

연대를 통해 각 단위들은 서로간의 소통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케 하고, 전반적인 운동의 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단위들이 모여서 공신력을 획득하고 그를 바탕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어 한 단위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운동의 담론을 더욱 물화 시켜내면서 우리의 논의는 좀더 대중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 갈 것이다.

이제 그동안 각기 진행되었던 우리의 운동의 성과들을 하나로 모아낼 필요가 있다. 98년 현재 여성운동을 자리매김하면서 운동을 하는 주체로서 여성을 기반으로 한 단위들의 연대 모색, 그리고 성폭력 근절과 같은 공통의 사안에 대한 사안적 연대 등 사회에 여성주의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여성운동이 주제별로 독자적인 방향과 조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속에서 전국적인 여성운동단위들이 각자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또한 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연대 한 판에 대한 제안을 한다.

98 한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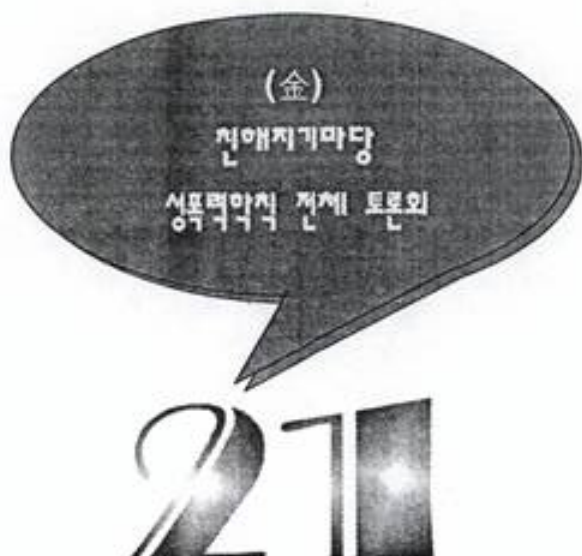
저절러 볼 우리들의 일정

한눈에 보기

	21일	22일	23일
8	1시부터 모여주세요 ! <u>연대비 운동권 TIME 옹남공 연!</u>	8:30 ~ 9:30 여성, 여성사	8:30 ~ 9:30 여성, 여성사
9			
10			
11			
12			
1	도여! 서애저기 마당 100~6:00 「후리의 다양성을 후리의 후기로!」	여성운동 대표회의 1차 10:00 ~ 1:00	
2		여성사 1:00 ~ 2:00	
3		남 문화관 2:00 ~ 6:00	문화마다 (안파 저퍼) 2:00 ~ 5:00
4		「후리의 다양성을 후리의 후기로!」	「NO END ! YES AND !」
5			
6	여성사 6:00 ~ 1:00		
7	서포터이자 세계 토론의 1:00 ~ 10:30 원점	여성운동 대표회의 2차 1:00 ~ 4:30	
8			
9			
10			
11			
12		남성 문화관 10:00 ~ 「분장하기, 몸파, 영화파..」	



...한 판! 하는 일정 알기



● 전애지기마당 (1시- 6시)

- 조 정하기, 도착 확인 : : 도착/ 자료집과 명찰을 받고/ 명단 체크를 하고/ "가상 인물 완성하기" 표 중 마음에 드는 칸을 채우고/ 3시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각 모임별 게시판이나 부스를 설치/저녁에 진행된 성폭력학칙 토론회 자료집을 미리 읽고 이해를 돕기 위한 공부방이 있다. (1시 ~ 3시)

➤ 가상인물 완성하기 <

사람들이 하나의 가상 인물에게 이름, 나이, 특징, 성격, 직업, 취미, 캠프에 오게된 동기, 올해의 소원, 여성운동을 하게된 계기, 생긴 모습 등을 하나씩 부여하여 자기 조의 마스코트가 될 인물을 완성하는 것. 이때 사람들은 한 인물을 선택하여 캐릭터 사황을 채울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을 참고로 하여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스스로는 일관성 있는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 작가, 창녀,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비서, 수녀, 모델,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위치에 서있는 여성상을 상징해보고, 그 다양성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업.

➤ 성폭력학칙 공부방 <

성폭력학칙 토론회에서의 이해와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토론회 들어가기에 앞서 발제문(연대회의 자료집)을 읽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여 앉을 수 있는 독립된 장소에서 준 발제자인 연대회의 구성원들이 상주하여 모두와의 간단한 소규모 세미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한 판 장소에 도착 체크인 후 아올아리(여성연대 한 판 자활단)의 안내를 받아 공부방에 참여할 수 있다. -> 연대회의 자료집을 소화한다.

.....

- 캠프 선언식 :
 - 캠프 개막 선언
 - 아올아리들의 준비된 노래와 율동
 - 각 모임의 인상깊은 3분 소개(이번 캠프에 바라는 점, 여성운동판에 바라는 점, 자기 팀의 특색, 올해 계획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 조발표, 숙소 배치, 일정 소개 (3시~4시20분)
- 조별 모임 :
 - 각자의 소개, 인사
 - 각 조를 아우르고 보살필 조장(아우람)을 뽑고
 - 각자의 생애에서 가장 통쾌했던 경험들을 이야기 :그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 조별 통쾌한 이야기 콘테스트에 (예를 들면,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어떻게 길들였는지, 운동판의 가부장적 동지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하철의 성추행법을 어떻게 혼내주었는지, 담배 피우는데 시비 거는 놈들에게 어떻게 일갈을 날렸는지...실제 경험들을 들어보는 자리)
 - (4시 40~ 5시 40분)

● 성폭력학칙 전제 토론회 (7시-10:50)

➤ 토론회의 위상과 목적 <

지난 5월,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는 성폭력 관련 학칙 제정을 위한 1차 공청회를 열었다. 작년부터 연대회의에서 고민되어진 성폭력 관련 학칙과 그 필요성, 앞으로의 운동방향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 보기 위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그간 큰 운동성을 발휘할 만큼까지 학내 여성운동단위들에 그 이해조차 파급되지 못했던 연대회의의 학칙사업을 알려내고 그 안에서 중간평가해 보는 기회였다. 현재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단위 사람들 이외에도 학내성폭력과 그 근절, 그리고 학내여성운동으로서의 본 학칙제정운동에 관심있는 여러 포지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모였고 허용된 4시간가량 관련한 정보들이 공유되었지만 1차 공청회로서의 당면과제에 충실한 만큼, 있는 그대로의 수위예의 이해 정도에 그쳤다는 등의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여성연대 한.판의 첫날에 자리하는 토론회는, 연대회의와 각 학교에서 보다 심화되고 구체화된 그 이후의 고민까지를 총화해 내고 더욱 발전시키는 자리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청회와 같은 위상은 갖지 않도록, 연대회의와 각 학교 학칙사업의 주체로서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의 논의가 충분히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편으로 한다. 7월에 있는 연대회의의 학칙관련 세미나 결과물과 각 학교 운동상황의 발제에 이은 간단한 질의응답 후 토론회가 진행될 것이고, 그 논의는 나아가 가을학기에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있을 성폭력근절주간(가)의 기획을 함께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판! 하는 일정 알기

● 큰 토론회 : 21일 오후 7:00 - 10:50

-여성연대 한.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폭력학제 전체토론회의 대상으로 하되, 본 판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실무자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① 토론회 개최, 연대회의 소개

② 발제 (60분, 7:00 - 8:00)

발 제 내 용	발 제 자	발제시간
성폭력의 개념	X	20분
학칙의 원칙, 필요성	달팽이	10분
학칙의 내용	쌀	15분
학칙 운동의 방향성	난이, 상날	15분

● 학칙 제정 운동의 방향성 : 현재 각 학교에서의 학칙 제정 운동 상황과 그 결과가 나타나 자료로 이용될 만한 경우의 발제가 연대회의 자료집의 발제문들을 근거로 한 발제 외에 덧붙는다.

=> 학교 주도적인 사례, 학교가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사례, 상담소와 위원회가 구성된 사례, 학칙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 여학생부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례, 이미 제정한 사례, 학내의 상담소 사례 등

③ 휴식 (10분, 8:00 - 8:10)

a. 작은 토론회를 설명하고 희망자를 받는다. 지극히 소수인 경우 작은 토론회 폐기를 결정한다.

b. 토론 진행시 이야기가 흘러지거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논의할 사항을 참가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받는다. 휴식시간에는 모두가 단순질문지와 발의지를 작성하여 진행보조자들에게 구분하여 수합시키고, 전체사회자와 함께 발제팀별로 분류하여 발제자들에게 전달한다.

-작은 토론회 ; 작은 토론회 희망자들과 작은 토론회 공간으로 이동한다.

④ 단순질의응답 (20분, 8:10 - 8:30)

-공부방 등에서 모두가 발제문을 소화했다는 전제로, 발제시 빠진 것 등 공유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단순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되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질의응답으로 나누어 소요시간을 줄인다.

⑤ 토론 (90분, 8:30 - 10:00, 최대 12:00까지 ; 토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논의할 것이 있으면 총화 후에)

-원탁 토론의 형식이므로 토론자들을 40명 정도로 예상할 때,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2개의 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황을 보아 전체사회자가 결정한다. 전체사회자가 발의를 정리하여 발표한 후, 그냥 진행할 경우 전체사회자가, 나뉘는 경우 각 팀별사회자들이 토론 과정을 조절하면서 진행한다. 각 토론팀은 공통된 문제제기로 토론을 진행하고, 사회자는 순서를 조정하고 시간을 체크하여 원활한 토론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토론의 마감은 팀이 있을 경우 팀에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경우 토론판 전체적으로 하며, 전체총화 후에도 팀별 논의가 계속될 수 있으나 전체총화 전 토론자가 개인적으로 먼저 토론장을 빠져나가는 일은 되도록 없도록 주의시킨다.

⑥ 총화 (60분, 10:00 - 10:50)

-두 팀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팀의 사회자가 팀 총화를 한 후, 토론을 마무리하는 전체적인 총화는 전체 사회자가 한다.

-토론의 총화를 한 후에 9월 성폭력 주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기초잡기서부터 사업기획안 공유(예를 들어 학교별 공청회, 신촌이나 관악 앞에서의 공동 집회, 기념물(팻지, T 등)의 공동 제작과 판매, 학생회와 노조 등과의 접촉 등), 실무자들끼리의 다음 약속 잡기까지 담보될 수 있으면 한다.

-전북지역 연대회의를 비롯하여 연대할 수 있고 관심있는 분야가 있는 단위연대체거나 단위, 개인들과 학칙사업이나 연대회의와의 기회를 모색한다.

● 작은 토론회

-발제 시간을 큰 토론회와 같이 한 후, 따로 모여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 응답과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충분한 이해를 얻은 다음에 큰 토론회와는 독립된 다른 토론을 다른 공간에서 진행한다. 사례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학칙의 필요성과 원칙까지 다루는 것이 편리하겠으나 나름의 논의로 토론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언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

: 발제 -> 간단한 질의응답 -> 그 뒤 큰 토론회와는 분리



...한 판! 하는 일정 알기



● 여성운동 대토론회 (토론회 1: 10시 ~ 1시 / 토론회 2: 7시 ~ 9시 30분)

➤ 들어가며: "우리가 왜, 현 시점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하려는가?" <

경제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면서 우리는 전사회적인 보수화의 경향을 볼 수 있다.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파고 들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여성운동이 거뒀던 많은 성과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운동이 한 사회를 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사회적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여성운동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야 하는가? 그러나 어느 운동이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 변화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여학생운동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전체'운동에 단순히 복무하는 운동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이론을 가지고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여성운동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들을 해왔다. 그리고 그 어느 세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왔다.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현재 작표를 점검할 때이다. 자, 잠시 숨을 돌리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주장하는 '독자성'이 무엇이며, 실천적으로 올바른 길 - 물론 이것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 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혹시 우리는 단일한 여성운동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에, 다른 운동 세력으로부터 받던 비난 - 비판이 아닌!! - 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차이'와 '연대'를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예전 여성운동가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자매애를 온몸으로 느끼는 동안 서로에 대한 비판력을 억제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다른 동지들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이야말로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추동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여성운동이 정지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적으로 우리를 고만하게 만들었던 문제들 - 이슈와의 문제, 조직적 체계의 문제, 대내/외적 연대의 문제들을 언어적인 악순환에서 고집내내 한번 치열하게 논쟁해보고 앞으로 여성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이번 여성운동 대토론회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 토론회 1: 현실전망과 이후의 방향성: 내용성에 대한 문제 (10시 ~ 1시)

- 여성운동이 어떠한 것들을 주되게 담론화 하였으며, 다른 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우리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① 정세분석 - '대학'이라는 공간과 학내 여성운동의 존재 조건

- 대학내 여성운동의 존재 조건에 조명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위치는 많이 변하고 있다. 이 속에서 여대생들은 사회적으로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가? 가부장적 권력이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회계층적 위치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것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건으로 작용하는가?

② 대학내 여성운동의 정치적 의제와 그간 운동의 성과들

- 90년대 중반부터 대학내 여성운동판은 급격히 바뀌었다. 현재 들꽃/들꽃모임, 여성연대회의, 살맛나는 세상, 여대생먹고살기대책위가 결성/활동 중이며, 이전에 있었던 전여대협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여성운동이 조직화되는 방식은 주로 어떠한 주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현재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성폭력과 여성노동이다. 이것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운동의 주요 의제가 되었는가? 왜 현 시기 우리에게 중요하며 학내 여성운동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가? 빈민여성문제나 정신대 또는 기지촌의 문제는 소규모적으로 진행되면서 학내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③ 대학내 여성운동의 현 주소 - ㄱ) 대학의 여성운동과의 관계 ㄴ) 다른 운동과의 관계

대학내 여성운동 (여성 사회단체와의 관계)으로서 또는 대학내 여성운동 (대학내 다른 운동과의 관계)으로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조명해보자. 연대를 해야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럼에도 그 구체적인 상과 실천적 방향에는 의견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어쩌면 '연대'가 지나치게 추상화된 논리로만 논의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현재의 사회적인 변화들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전체' 운동판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변하는 운동판은 즉 우리 운동과 다른 운동 사이의 관계도 변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④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성 - 연대의 원칙과 조건, 그리고 실천의 전략들...

● 진행방식: 발제자 4명 정도가 위의 질문들에 모두 답변할 수 있는 발제문을 쓴다. 사전에 각자의 내용은 충분히 공유가 되어 서로의 의견차이가 들어날 수 있도록 발제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또한 발제문도 논쟁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제제안: 고려대 여성위원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먹고살기대책위, 살맛나는 세상

...한 판! 하는 일정 알기

● 토론회 2 : 여성운동의 방법론 및 조직체계에 대하여 (오후 7시 ~ 9시 30분)

-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총여학생회의 유의미성/무의미성에 대한 논쟁으로 체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불거졌으며 기존 운동권의 중앙집권제를 벗어난 여성주의적 운동 방식에 대한 추구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와 한계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인재재생산의 문제가 많은 운동가들을 괴롭히고 있다. 현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현 주소는?

①여성주의적 조직론은 무엇인가?

몇 해 전부터 학생회의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또한 총여학생회도 그 화살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학생회의 간접민주주의를 넘어선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총여학생회의 대안적 형태로서 위원회 내지는 자치단체들의 연합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논쟁은 여전히 유효한가?

②여성주의적 조직의 내부체계에 대한 문제

여성주의적 조직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내부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운영(의사결정) 부위와 집행 부위가 확고히 분리된 관료주의적 체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성주의적 체계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체계에서 축적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야 하는가? 혹은 '기존 체계에 반대하는 것 = 무체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③연대체 또는 '중앙'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 여기에서 '중앙'조직이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여학생운동의 최초의 전국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전여대협을 비롯해 현재에는 여성연대회의, 살맛, 먹살, 들꽃/들꽃 등의 연대모임들이 많다. 연대체로서 이들이 여태까지 수행한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중앙' 조직으로서 연대모임이 역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 다른 학생 정치조직들은 의장과 중앙집행부를 갖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권위가 갖는 강제성과 자발성이 빠질 수 있는 무책임 사이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④대표자회의의 의미성

잠시 추진되다가 해소가 된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평가해보자. 그 의미성들을 아직도 유효한가? 대표자회의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여성주의적 조직의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면서 토론회를 마쳤으면 한다.

진행방식 : ①②③은 각 학교 상황마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분 발제에 가장 적당한 학교/개인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한 학교가 한 소주제에 초점을 맞추되 다른 부분(다른 학교/개인의 발제)에 대해서는 논평을 해준다. ④에 대해서는 모든 발제자들이 답변한다.

발제제안 : 연세대 총여학생회, 관악여성연대모임, 여성연대회의,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 낮 문화판 (2시-6시)

● 토론회 2 : 자신이 경험한 통쾌한 일 콘테스트 (2시 ~2시 반)

첫날 친해지기 판에서 한 통쾌한 일 이야기하기의 연속. 각 조별로 한 명씩 가장 통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경연을 벌이고 서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통쾌한 경험을 더욱 더 많이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가장 멋진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게 별도의 상품이 수여됨. 상품은 "비밀".

● 칠인경기 (오후 2시 반-3시 반)

각 조별로 5종목의 경기를 하며 한 종목 당 10분-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조별 대항이며 가장 많이 이긴 조에게 역시 상품이 주어질 예정. 역시 상품은 비밀이다.

① 줄넘기 (흔히들 꼬마아 꼬마아라고들 한다.)

방식은 알다시피 노래를 부르면서 각 조원들이 발을 맞추어서 줄을 뛰어넘는 것이다. 10분 동안 어느 팀이 더 많이 넘었는가가 승패의 기준이다. 팀웍이 핵심인 게임이다.

② 지하철 다리벌리기

지하철에서 다리를 짚 벌리고 앉은 아저씨들을 보는 것은 흔한 경험일 터. 그런 아저씨들과 싸우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긴 의자(들) 이상 있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 기준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면 이기는 게임. 사실상 다리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것만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을 경우 눈싸움을 해서 판가름 한다.

③ 33농구

말 그대로 농구. 각조에서 3명씩 팀을 짜서 농구하기. 10분을 해봤자 0:0 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유투를 한다. 그래도 안되면? 할 수 없다. 남자들이 하는 흔히 스포츠라는 것에 겁내지 않기 위한 게임이다.

④-1 물풍선 놀이

농구에서 지는 팀이 표적이 되어 서 있고 이기는 팀이 물풍선을 던져서 호탕하게 노는 거다.

④물총싸움

1x병에 물을 채워 만든 물총을 사용한다. 각 조별로 한명씩 색소가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맞은 색소량에 따라 승패를 가른다.

⑤ 개떡다귀

개떡다귀의 그림 안에 한 조가 들어가서 한 귀퉁이에서 다른 귀퉁이로 이동한 후 다시 처음의 귀퉁이로 오는 것이 게임의 목표이다. 이 와중에 다른 조가 그림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끌어내면 밖의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글로는 잘 안풀리는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쉬는 시간 (3시 반-5시)

이 시간에 한쪽에서는 먹고살기 대책위원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본인 의사에 따라 참여 가능.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후의 토론회를 위하여 휴식.

● 그림공동작업 (5시 -6시)

3조 정도를 한 팀으로 하고 큰 천에다 공동으로 그림을 그린다. 주제는 각 팀마다 여성연대 한 판, 성폭력 학칙제정, 여성주의.

...한 판! 하는 일정 알기

● 먹·살 토크쇼 (3시30-5시)

안녕하세요. 신규 여성실업자 모임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연대' (먹고살기 대책위)입니다. IMF나 러시아 모라토리움이니 해서 경제가 죽자 죽자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그냥 죽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떻게든 먹고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개 숙인 아버지에 짓눌려 있던 대학생들, 그 중에서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눌러 있던 여대생들이 조금씩 소리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가 죽는다고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는 않겠다.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모인 것이랍니다. 민간 단위에도 군 가산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우기는 국방부의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날도 더워 죽겠는데 별게 다 일 받게 하고 있네요. 20년 넘게 돈 들여서 배운 우리의 능력을 실직 가장의 지지자로서만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이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여성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먹고 살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토요일(둘째날) 문화관 쉬는 시간 3시 반 - 5시 사이에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연대'와 먹고사는데 관심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꼭 와서 같이 이야기해요. 꼭이요요~

● 밤 문화계 (대토크쇼 끝나고 곧장. 밤새)

● 분장하기

모두가 분장을 하되 각 조별로 가장 훌륭하게 분장을 한 사람을 한 명씩 선출한다. 그 후 전체 모임 관에서 콘테스트를 거쳐 한 명을 선정한다. 선물은 3천원 상당의 카레오이 시리즈 전집.

> 분장의 주제 <

- 가장 중성적으로
- 남자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 모습으로 - 그외 환경, 통일, 등 밑대로 주제를 정해서.
- 여자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모습으로 - 그냥 하고싶은 대로.

● 춤판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추기.

● 영화판

좋은 영화를 배경으로 놓고 그 영화의 ost를 잔다.

영화-보이즈 온 더 사이드, 파니핑크, 연어알, 바그다드카페, 그랑부르.

중간 중간 빠른 음악을 넣어서 일종의 록카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日)

워크샵 / 신규여성실업자에 관한 작은 토크쇼

/ 홍화마당 ' NO END! YES AND

23

● 워크샵 (10시 - 1시)

- 대학에서 여성운동을 함에 있어 힘든 부분 중 하나는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에도 버거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은 쉽게 지치기 일쑤이다. 활동을 하면서 항상 아쉬워하게 되는 노하우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함이 이 워크샵의 목표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 워크샵 하나 by 호그리

①자아 정체성 프로그램

Safety Zone - 동근원을 Safety Zone으로 설정하고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표시하며 Training에 들어간다.

정체성 놀이 - 동글게 원을 그리고 앉아서 자신들이 평소에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한 뒤 박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고 박수를 쳐준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에 자신들의 아픈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고, 그것을 박수를 통해서 해소한다.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글쓰기 마라톤-자신이 평소에 가장 크게 느꼈던 분노에 대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글을 쓰고 그중에 가장 분노스러운 글을 골라서 당사자가 나오게 한 뒤 진행자에게 한명에게 분노의 상황을 표현하게 한후 분노의 상황을 해소하게 한다.

이것은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야.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알면 상황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구.

...한 판! 하는 일정 알기

② 일하면서의 어려움 나누기

페미니스트로 커밍아웃한 다음에 여자친구들이건, 남자친구들이건 만나면 종종 불편해지지 않아? 여자친구들은 너 그렇게 사는 건 좋지만 너무 불편하고 귀찮잖아라고 얘기하고, 남자친구들은 네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너를 피하고. 너도 역시 살면서 여성으로 힘들고 짜증나는게 있는데 친구들은 너한테 무작정 기대려고만 하고 말야. 이런 때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어.

같이 활동하는 애가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너와 함께 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라든지. 평소에 자신이 여성운동을 하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나누고 해결점들을 찾아보고 말야.

③마무리

자원나누기 - 자신들이 잘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러한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칭찬하기 - 남자들이 우리의 몸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거 말고 우리들이 우리들을 칭찬해 보는 거야. 긍정적 여성성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지.

Safety Zone을 다시 표시하기 - 워크샵을 마친후의 자신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 다시 표시하고 마무리한다.

● 워크샵 들 by 썸씨

① 실무 Training Workshop이라니...(뭐난 말이지)

단위에서 여성운동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같이 풀어보자는 거지...첫째는 Training 준비자들의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알려주고 둘째는 이 판에 모인인들이 함께 자기 단위 자체에 존재하거나 그 안에서의 개인적인 고민을 얘기하고 함께 해결점을 모색 해 보는 자리라는게지.

노하우라고 하니까 대단한 비법처럼 들리는군. 어쨌든 다 알고 있는 것들일수도 있는데, 소소하게 어떤 일을 벌일 때, 기획에서 선전, 진행까지에 관한 실무내용과 마인드에 관한 아이디어라고 해야하나. '자, 우리 다음달에 여성연대한판이라는 행사를 하자.'라고 결정한 다음 각자가 해야하는 일들에 관한 것이지. 대중 다치면 다 하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작할때마다 약간은 당황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을 정리해보고 함께 이야기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도록 하자구.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이나 서로에 대한 예의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해 보았으면 해.

특히, 학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지원금이라던가, 총학생회와의 관계를 푸는 것. 학교 안에서 흘러가는 행사들과 총여나 여성위원회가 하는 행사들의 관계, 부딪침,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의 대처, 학교당국과의 관계등등... 물론 각 학교마다 그리고 매시기마다 다른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어떻게들 풀고 사는지, 가장 파워풀한 전략은 무엇인지 '작전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썸씨'가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부분인데 말이지. '게릴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것이야. 보통 지금까지 여성주의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때, 학생회를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라는 공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서 과부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애. 졸업을 했거나 학생이더라도 학생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싶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돈과 사람과 장소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를 매뉴얼로 만들었으면 해. 물론 아직까지는 아주 양상한 매뉴얼인데, 서로 공유하고 실험하면서 버전업을 시킬 수 있을게야.

② Workshop Program을 살짝 소개하자면

a. 학내활동 효과적으로 하기.

- * 사람만들기-내부에 함께 있을 제한된 사람과 외부에 많은 사람 만들기
- * 학내 타 단위.행사와 관계맺기
- * 계속 잡고있어야 할 일(장기적인 일)과 그 시기에 잠깐 할 일 조율하기
- * 학교당국과의 협상
- * 효과적인 행사기획과 마인드

기회 마인드 - 기획서 쓰기, 체계 만들기, 시테크, 재테크

재테크 - 지원금, 외부 스폰받기, 여타 스폰의 형태들

실행 - 선전, 자료집, 인원동원, 콘티작성

선전 - 사전작업, 홍보(공간내, 언론타기), 사후답문 만들기, 사람남기기

b. 게릴라로 살기

- * 이슈파이팅 : 담론지형, 실재지형의 결합
- * 담론은 언론으로 통신으로 : 보도자료 만들기, Event 만들기
- * 실재지형 : 연대할 단위 찾기, 공식요구방법, 법에 대한 이해
- * Event 실무

γ. 서로서로 도움주기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 이야기하기. 서로의 해법찾기.

● 신규여성실업자에 관한 작은 토론회 (10시 ~ 1시)

-참가단 행사관으로 전북지역 연대회의(전)에서 준비하는 작은 토론회.

● 종화마당 「NO END! YES AND !」 (2시 ~ 5시)

-사회자 진행으로 각자의 소감 이야기 하기

(사회자의 준비된 질문과 답변자의 준비된 대답이 오가는 토크쇼의 형태)

WHO? 조별 1명, 학칙 토론 사회자, 학칙 문화제 준비팀 중 1~2인(문화제 홍보 및 각오 밝히기)

여성 운동 토론팀에서 1~2명, 워크샵 팀, 캠프 준비팀...

-광고 : 각 단위 행사 예정 소개, 사업 홍보 등..

-마무리 멘트와 박수...새로운 시작을 기약하며

“우리가 왜, 현 시점에서
여성운동 대토론회를 개최하려는가?”

발제문

토론회1. 현실전망과 이후의 방향성
토론회2. 여성주의 조직론
대학여성운동사 (70년대-현재)
학내활동 효과적으로 하기

모의

토론회1.

현실전망과 이후의 방향성

발제자 : 살맛나는 세상 (수원대 총여학생회장 박인선),
먹고살기대책위원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회장 송난희),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양진)
사회자 : 연세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최전승민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화나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를 목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운동의 구조나 판도 달라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학의 위상도 바뀔 수 밖에 없으며 여성운동의 지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학생사회도 급격히 변했다. 80년대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반성과 비판 속에서 90년대에는 독자적인 여성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험들이 있고, 90년대의 말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 대학내 여성운동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운동가들은 앞을 향해서 달려왔다. 그러나 지금은 여태까지 달려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현 좌표를 점검해야할 시기이다. 이것은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보다 전면적인 여성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자, 잠기 숨을 돌리고 생각해보자.

90년대 대학의 여성운동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서가 아닌, 독자적인 내용과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여성운동의 철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성차'라는 모순 설정을 어떻게 바라보길 요구하는가? 민족통일이나 노동자계급해방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정했던 여성운동에 대해 비판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성운동을 시작 내지는 진행하면서 서구의 페미니즘 이론을 열심히 강독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현재 한국사회의 운동론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이 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의도라 할 수 있다.

여성운동에 있어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성차'라는 모순 설정을 어떻게 바라보길 요구하는가? 민족통일이나 노동자계급해방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정했던 여성운동에 대해 비판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차이'와 '연대'라는 개념들이 운동가들의 뇌리 속에 항상 박혀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동의나 이의가 암묵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았나. '자매애'를 너무 강조하다 나머지 서로에 대한 비판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독자성'이라는 과제 말고도 우리는 '차이'와 '연대'를 여성운동의 또 다른 원리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나머지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작업을 소홀히 하거나 동어반복의 악순환에 빠지곤 했다. '차이'가 다른 운동세력과의 차이이든 여성운동 내부의 차이이든,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차이인지에 대한 논의를 표면화시켜야 한다. '차이'와 '연대'라는 개념들이 운동가들의 뇌리 속에 항상 박혀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동의나 이의가 암묵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았나. '자매애'를 너무 강조하다 나머지 서로에 대한 비판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동안 대학의 여성운동이 다른 운동세력으로부터 받아왔던 비판들은 진지한 비판보다도 감정적이고 다분히 여성 비하적인 비난이었기 때문이다. 생산적인 비판은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모든 얘기를 하려면 아마도 페미니즘 사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몇 십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작업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는 이론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완벽한 이론이 아니더라도 서구의 이론을 한국 사회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것이 여성운동론으로 정립되면서 논쟁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여태까지 이어왔던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운동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간 우리가 쌓아왔던 성과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한 잘못된 실험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기나긴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이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

토론 주제

1) 정세분석 - '대학'이라는 공간과 학내 여성운동의 존재 조건

아무래도 모든 발제가 정세분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세분석이란 그 운동의 현재적 타당성과 미래의 방향성을 논하는 데에 기초가 된다. 여기에서는 '대학'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해봤으면 한다. 현재 대학의 사회적 위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성에게 있어 대학은 하나의 권력으로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기회비용인가? 즉, 특권계층이라는 한 축과 대학의 자원이 남성중심적이라는 또 다른 사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대학이 졸업 후 여성들을 계급적으로 분리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는가? 여성들 간의 계층적 차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가?

2) 대학내 여성운동의 정치적 의제와 그간 운동의 성과

현재 대학의 여성운동 내에서 주되게 이슈화되는 것은 성폭력학칙제정과 신규여성실업자의 문제이다. 이 주제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여성운동의 주된 의제가 되었는가? 빈민여성문제라던가 생산적 여성노동자의 문제,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는 앞의 두 주제에 비해 확실히 소규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소위 '기층'여성의 문제를 아예 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 기인하며 어떠한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3) 대학내 여성운동의 현 주소

대학내 여성운동으로서 내지는 대학내 여성운동으로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조명해보자. '연대'를 해야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럼에도 그 구체적인 상과 실천적 방향에는 의견차가 있다. 이것은 어쩌면 '연대'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논리로만 논의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90년대의 '문민정부(?)' 등장과 학생운동의 위기로 전제적인 사회운동관이 변하고 있다. 변하는 운동관은 즉 우리의 운동과 다른 운동 사이의 관계도 변한다는 의미이다. 그 변화 속에서 서로 '연대'를 어떻게 사고하는가? 무엇을 기반으로 연대해야 하는가?

4) 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성 - 연대의 조건과 원칙

여성운동의 확장과 발전은 아마도 누구와 어떻게 연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대'의 원칙과 조건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어떠한 작업들이 있겠는가?

토론회 2.

여성주의 조직론

발제자: 관악여성모임연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학내 성폭력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사회자: 최전승민

왜 여성주의에 '조직론'이 필요한가?

여성주의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구조화되어있는 가부장적 사회질서의 전복을 이야기한다. 여기서의 가부장적은 다양한 형태의 언어로 해석될 터이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지점은 남성에게 권력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며 그 남성들은 또한 위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구조과 담론 모두가 특정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타자화시킨다. 여성은 제 1차 타자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깨달음을 공유한 여성주의자들은 권력을 해체하고 재조직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다. 여성주의는 결코 권력을 배워가고, 권위를 집단화하는 방식을 나아가서는 안되며 아무도 타자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동하기를 지향한다. 따라서 레닌의 민주집중제에서, 혹은 노동조합조직론에서 조직의 체계를 창안한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취하고 있는 조직의 방식은 수많은 사람들을 논의에서 탈락시키는 것으로 읽혀졌고, 대학내 여성운동가들은 새로운 방식의 질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조직의 책임자와 실무활동가, 조직원으로 구성된 형태를 거부하고 전 구성원들이 평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모임을 시행해본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낭만적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원칙적으로 올바르나 현실적으로는 집중된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성주의' 조직이 가능한가?

그 고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모임)을 통해서 드러났다. 모든 사람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논의하며, 모두 책임을 나누는 활동가 조직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불행하게도 현재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조직의 책임자와 실무활동가, 조직원으로 구성된 형태를 거부하고 전 구성원들이 평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모임을 시행해본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낭만적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원칙적으로 올바르나 현실적으로는 집중된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나치게 상황을 비판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징후들은 급기야 대학 내 여성운동가들에게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마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진전된 고민일 수 없을 것이다. 탈권위가 무체제로 이어져 조직의 방만함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체계에서의 최선의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가장 효율적이고도 여성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여성주의 조직론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만약 그것이 지금의 질서에서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또다시 낭만적인 공상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기존 질서는 분명 위계화된 조직이다. 우리는 그 위계를 권력이라 부른다. 바로 그 권력의 해체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고민을 진전시켜보자. 대학 내에서 우리가 꿈꾸는 여성주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간접민주주의의 대리권력으로 타락한 대학의 질서에 대해 문제제기를 던지고, 선거라는 이름으로 공간과 돈을 쥐고 있는 권력을 해체하자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질서의 해체모니를 질 것인가?

현재의 여성주의 조직형태는 어떠한가?

현재 대학내의 여성운동계에는 다양한 조직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각 학교단위별로는 총학생회가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계이며, 자치연합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곳, 이 두 체계가 공존하는 곳, 여성위원회체제로 있는 곳 등이 있다. 또한 연대체로는 전여대협(이하 서여대협 등), 학내 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이하 먹살대) 등이 존재하고 있다.

각 학교단위별로의 조직체계는 일단 학생회라인에 속해 있는 총학생회와 여성위원회, 학생회라인과 상관없는 자기 질서를 가지고 있는 자치모임이 있다. 총학생회는 공간과 재정의 독자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치모임은 논의의 독자성이 보장된다.

연대체는 현재 대학내 여성운동가들의 명실상부한 대표체이나 논의와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전여대협, 성폭력과 여성노동 등 주제를 가지고 정보와 행동을 공유하는 형식의 연대모임을 구축하고 있는 연대회의, 먹살대 등이 있다. 전여대협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두 단체는 주제로 모여 있기 때문에 주제를 벗어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말에 탄증이 걸릴 수 있겠으나,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이 외의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 이들

대학 내에서 우리가 꿈꾸는 여성주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간접민주주의의 대리권력으로 타락한 대학의 질서에 대해 문제제기를 던지고, 선거라는 이름으로 공간과 돈을 쥐고 있는 권력을 해체하자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질서의 해체모니를 질 것인가?

조직에게 지나친 하중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우리가 여태까지 영위해 온 이들 조직체계의 한계와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논의가 보다 발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어려움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 판단, 가능한 지점의 선택을 현명하게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여성주의 조직론의 원칙들을 점검하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여성주의는 그동안 운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는 진보진영의 편견속에서 어렵사리 해왔다. 심지어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붕괴되던 90년대 초반에는 대학의 여성운동이 더 이상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마저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안체에 대해 고민하고 자치모임들을 만들고, 열정을 가지고 이슈들을 터트려 왔으며 때때로 심지어는 그것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것은 놀랄만한 "자생력"이었다. 이 자생력은 담론에 생명을 불어넣고 활동가들의 삶과 여성주의를 밀착시켰다. 하지만 운동은 열정과 의지만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지 않다. 여성주의 조직론은 우리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논의이다. 이번 대토론회가 여성주의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으로 될 수 있는 논의로 발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토론 주제

0) 여성주의 조직론의 원칙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조직이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본다.

1) 여성주의 조직의 외형- 탈권위인가? 권력의 쟁취인가?

연세대와 관악, 이화의 상황을 들어보고 가능한 최선에 대해 논의해본다. 각자 학교의 특수성은 최대한 배제하고 가장 여성주의적인 조직체계에 대해 토론한다. 이것은 1차토론회와는 달리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2) 여성주의 조직의 내부체계

지속적인 여성주의를 위해 내부체계안에서 대학의 여학생을 만나는 방식,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 토론한다.

3) 여성주의 연대체

현재 전여대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여대협과 같은 전국단위의 여성주의대학연맹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조직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표자회의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제기인가?

우리가 여태까지 영위해온 이들 조직체계의 한계와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객관적인" 상황 판단, 가능한 지점의 선택을 현명하게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여성주의 조직론의 원칙들을 점검하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대학내 여성 운동사

(70년대~현재)¹⁾

1) 본 논문은 98년 1학기에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이론' 수업 시간에 유정미와 권현수가 공동 제출한 것을 유정미가 다시 수정한 것이다.

대학내 여학생조직의 시기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여학생 조직이 소위 under조직의 형태로 생겨났다가 다시 남학생중심의 조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는 80년대 중반이전의 1시기, 두 번째, 독자적 여학생조직인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치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 세 번째, 새로운 경향의 여학생 자치집서가 형성되는 90년대 중반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그러나 이 각각의 시기는 결코 단계적 발전의 경로라고 볼 수 없으며,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상황이면서 다음 시기의 학내 여성운동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며, 또한 단절적이기도 하다. 덧붙여 첫 번째 시기의 경우는 자료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기술을 할 수 없었다.

과거 선배들의 운동사가 앞으로도 계속 켜여져야 할 것이며, 우리의 현재 역시 기록되어 짐으로서 여성 운동이 축적되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이고, 우리의 존재를 역시 진행되어진 성과들의 연장 선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I. 독자적 여학생 조직이 꾸러지기 전인 80년대 중반이전

당시의 정세 : 일단 이 시기는 70년대와 80년대 초반의 경우 반유신 반독재 투쟁을 기치로 대학사회가 지하 조직화되던 때이다. 당시의 정세는 박정희 암살사건을 계기로 80년 서울의 봄을 맞았으나, 다시 광주 민주화 항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이는 84년 학원 자율화조치로 총학생회가 부활하게될 때까지 이어진다. 사실 70년대에서 80년대초반이라고 부르기에 그 사이에 많은 정세의 변화가 있었지만, 자율적인 학생회 조직이 공식적으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 여학생 운동 역시 이 상황에서 개입을 통해 형성되어지고 있었다는 데서 첫 번째 시기는 이렇게 규정하기로 한다.

주요 이슈 및 상황 : 70년대 후반부터 시국문제를 안고 활발히 진행되어온 학생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들은 자체적인 조직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아직 전근대적인 남녀 차별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학생운동 내의 흐름 때문에 여학생들은 학생운동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었던 이른바 under

사회과학학회는 여학생에게 그 문을 닫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학회의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때로는 자신들의 학회는 여학생을 포함하지 않는 치열함을 지닌다는 어리석은 명분으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몇몇 학교에서는 여학생들만을 중심으로 하는 under여학생 조직들이 생겨났었다.¹⁾ 당시에는 학생사회의 여학생 배타 구조와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라는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이 되면서 사회과학 학회들이 여학생을 받아 들이기 시작하면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었던 여학생 학회는 전체 운동 조직에 편입하게 된다. 여기에는 당시 여학생학회는 여학생 운동조직으로서 보다는 배타적인 학생사회에서 편입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는 한계에서이다. 하지만, 여학생학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인 조직을 꾸리려했던 시도는 이후의 학내 여성 운동에 충분한 본보기가 된다.

당시에는 남학생들과 같아짐으로서 여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차별의 시선들에 대해 나가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담배를 피는 것은 이를 명시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도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을 채로 다니는 것이 당시에는 성차별적 남성 그룹을 향한 전략이었다.²⁾ 여성과 사회 6호에서 조명숙씨가 '불분명한 적과의 투쟁'이라 함은 이 시기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문제의식일 것이다. 여학생들을 감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편견으로 대하는 운동권들에게 감히 문제제기 할 수 없는 상황은 불분명한 적과의 투쟁으로 돌아놓았다.

80년대 초기의 관제적 성격의 학도 호국단 체제하에 여학생회가 편제되어 있었으나, 여학생 운동을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외에 비합법 조직의 형태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구모임 등이 생겨났다. 하지만 여기서도 독자적인 여성 운동이라기 보다는 주류학생운동의 흐름 안에서 그 위치를 찾으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자 빈민 여성, 농민 여성에 더 관심을 가졌지만 '여성'을 독립된 주제로라기 보다는 일단 다른 사회과학 서적을 다루었다. 당시에는 여학생 운동이라 부를 수 있는 그룹들에게 있어서 불평등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큰 인식이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여성문제의 객관성, 당위성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논리로나마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서 있는 현실, 대학과 운동 자체 내에서의 불평등의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역량은 상당히 부족하였다. 그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몇몇 불평등한 현상들과 그에 대한 불평불만과 분노의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1) "사회과학 학회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수 없는 좌절과 모멸을 겪어야 했던 몇몇 여학생들이 주도하여 이른바 여학생 사회과학 학회를 78년 가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가장 진보적이라는 학생운동권에서 가장 후진적인 남녀차별 행태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이후 각 단과대학의 여학생학회는 협의체 구조를 유지하면서 자연대 등에도 여학생학회를 만들어 나갔다."-박복희, '독자적 여학생 조직을 만들기까지', 『여성과 사회』 6호, 창작과 비평사, 1995

2) 감정과 당위성만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되도록 남학생들과 '똑같이' '하겠다'는 수준이었다. ... 남자선배는 선배나 오빠가 아닌 '형'이었다. ... 우리 세대에서 처음으로 남학생들과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 담배는 새로운 진보의 표시였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토대로 알아올린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조명숙, '불분명한 적과의 길고긴 투쟁', 『여성과 사회』 6호, 1995

II. 80년대 중반 독자적 여학생조직, 총여학생회 건설기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당시의 정세 : 이 시기는 대학내 학생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때이다. 84년 학원 자율화 조치로 총학생회가 부활하게 되었으며, 특히 87년 6월을 기점으로 운동이 정점을 이루었고, 학내 중심 담론이 운동권을 중심으로 배열되었던 때이다. 총여학생회 역시 84년 총학생회가 부활하면서 여학생 학도호국단이 총여학생회로 개편되었고, 이 것은 호국단의 관제적 성격을 탈피해 여학생 운동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총여학생회의 가장 큰 갈등은 총학생회와의 관계, 즉 다른 운동의 영역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이다. 단순한 분류이지만 당시의 운동권을 민족해방 계열과 노동해방 계열로 나눈다면, 이 두 운동 속에 끼여 여학생 운동 역시 이 둘 중의 하나를 자신의 전체 운동으로 삼아야 했다. 여학생 조직으로서 여성문제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전체 운동의 이념에 복무해야만 했다. 전체 운동과 부문운동으로 나뉘어 지면서 여성문제를 운동의 장으로 삼더라도 전체 운동의 이념에 복무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거나, 전체운동의 여학생 동원조직으로서 강요를 당하곤 하였다.³⁾ 사실 이것은 현재까지도 대다수 대학 내에 있는 갈등이다.

90년대에 들어서서는 대학 내의 분위기가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91년 소련의 붕괴, 그리고 92년 문민정부의 등장이라는 사회적 상황이 있었고, 페미니즘 또한 다양한 문화적 매체로 확산의 경향에 있었다. 학내 운동권의 경우 민족해방 계열의 경우 반미와 통일의 투쟁으로 끝수화되고, 노동해방계열의 경우 운동 조직이 다분화되거나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주력하였다고 나는 평가한다. 여기서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여성운동의 조직은 반미와 통일이라는 당위성에 여성운동을 결합시키는 편향을 보이거나, 인자의 재생산이 안되는 내부적 침체를 겪기도, 총여학생회가 해소되기도 하며 여전히 다른 운동권과의 갈등의 상태에 있었다. 서울대의 경우 91년에 총여학생회가 해체되고 94년에 여학생 특별위가 만들어진다. 고대에서도 8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총여학생회가 6대에 해소되고 여학생위원회로 다시 시작하였으나 2대 때에 총학생회측과의 정파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3대 때 해소되고, 96년에 4대 여위가 이를 계승하게 되었다.

중심이슈 및 기조 : 앞에서 이 시기의 대학내 여성 운동이 대학내 중심 운동권 담론의 틈바귀에서 여학생운동으로서의 길찾기의 갈등의 국면이라고 보았던 것처럼, 여성으로서의 문제의식과 '소위' 전체 운동권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학생단위의 기조 및 사업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이시기는 여대협(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 건설된다. 우선 86년 권인숙 성고문사건을 계

3) 총여 자체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그간 내부사업에만 치중한 듯한 인상을 갖게할 정도로 밖으로 외화되는 부분은 적었고 부서별로는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 녹두꽃2호, 1989

'대중평사의 내용에 있어 여학생운동이 담보해야할 독자적 내용의 결함이 미약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의 일반적 지향 뿐 아니라 여학생으로서 가지는 불평등과 여성으로서 갖는 제반의 문제를 해결기 위해 주제로 서야 하는 여성운동의 내용까지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6대의 대중사업에선 여학생운동의 독자성을 살리는 데 있어 미약했다.' - 정정현 19호, 1990

기로 서여대협이 건설되고, 전여대협은 88년 평양축전을 계기로 전여대협 건준위 형태로 결성되었다.

여학생운동에서 여성으로서의 문제의식에 방점이 찍혔다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초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탁아활동, 대동제 때의 해방흔레, 88년 에이즈, 매춘유폐박 반대투쟁, 89년 취업차별철폐투쟁,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주적 여성운동을 기치로 기치촌 활동과 정신대 수요 집회에 참가하는 활동등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운동에 중심을 둔 활동에서 여학생 조직은 굵직한 사건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체운동의 하부단위로서 역할해야했다.

기초에 있어서는 인간해방으로서의 여성해방과 자주적 여성운동을 들 수 있다.

인간해방을 기조로 삼은 데는 전체 운동 세력과 절대 적대적이어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깃들여 있다. 운동권들의 가부장주의적 성향을 누누히 경험한 당시 여학생 조직에 있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대전제로서 노동해방이나 민족해방이 무거운 짐이었다.⁴⁾ 자주적 여성운동이라는 기조는 90년대에 들어서 전여대협에서 나온 기조이다. 자주적 여성운동의 기조 속에는 기존의 페미니즘은 우리 현실에 기반하지 못한 채로 서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동구권의 붕괴 후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방향성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대신할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⁵⁾

이 시기의 문제점 :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학내의 전체운동인 것처럼 역할 했던 민족해방계열과 노동해방계열에 치여서 여성운동으로서의 고민을 성숙시키기에 어려웠다는 점이다. 여학생운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라치면 총학생회가 찾아와서 배타성을 지적한다든가, 총여학생회 무용론이 나오게 되고, 총학 차원의 운동에 열심이다 보면 여학생 독자조직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부적 갈등의 국면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92년 김보은 김진관 사건을 계기

4) 97년에 '청년학생한마당'에서 '여학생 운동/대학내 여성 운동'논쟁이 있었다.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는 총여학생회 등의 활동은 '여성운동'으로서 보다는 '여학생 운동'으로 불리었는데, 이는 학생운동의 연장선에 있다는 함의가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5) "새로운 여성문화는 인간해방이라는 대전제의 구체적 표현이며, 폐국되고 퇴폐적인 남성문화도 같이 척결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노동문 2호, 1989

"투쟁의 현장에서 남하우 못지 않게 결의가 높음에도 여하우의 역할은 상당히 불명확하다.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간호조, 방물조, 운반조, 선동조 등을 보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하우들이 결합할 수 있게하여 투쟁의지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정경현 19호, 1990

6) 자주적 여성운동

⑧변혁운동과 학생운동과 여성운동 사이의 고려

⑨러시아, 동구권의 붕괴 후,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혼돈

방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제는 대중의 의식에 기반한 활동이 활발히 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뒤를 이을 모습은 바로 자주적 여성운동이다.

그리고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보자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적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운동인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외세지배, 봉건의 요소가 남아있는,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자주적 여성운동의 태동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출처를 확실치 할 수 없는 한 장의 문서에서 발췌

로 전국의 총여학생회 단위가 결집하게 되고 여학생 운동조직들이 이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게 되자 대변에 총학단위에서는 총여학생회로 압력이 가해졌다.⁷⁾

두 번째는 90년 여학생 조직의 가장 큰 활동이었던 기치촌 활동과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의 참가를 볼 때, 반미와 통일이라는 당위성에 귀착되어 여성문제로서의 인식 지점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나왔던 문건이나 PC등을 보면 "성폭력의 근원,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미군여러분 범죄는 모국에서"라는 성폭력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과의 문제에 앞서 반미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만 사고하려하거나, 정신대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도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고통, 정신대, 이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기본적인 여성주의적 관점까지 상실해버렸다.⁸⁾ '제국주의적 억압의 철폐'와 '조국통일'이라는 기계적 신념과 여성운동과의 결합이 그 내용인 것이다.

셋째는 정파간 싸움에 끼여있으면서 나타나는 폐쇄인데, 어느 정파와 가까운 총여학생회가 하는 일을 다른 정파의 여학생운동 조직은 관여하지 않거나, 비판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학생 운동이 정파 구도 속에 위치함으로써 그 정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다른 그룹은 대학내 하나있는 중앙조직인 총여학생회의 운동 자체에 동참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III. 90년대 중반 대학내 새로운 여성 운동의

담론 확산기, 그리고 현재까지

이 시기의 정세 :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내 운동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페미니즘을 화두로한 영화나, 책 등이 상품성⁹⁾을 띄고 등장하게되었다. 동시에 대학내에서도 개설되는 여성학 강좌가 늘어나게 되고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과학에서도 맑스주의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많이 확산되어졌다. 이와 함께 대학사회의 운동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서 제기되어졌다. 반면에 사회적 모순, 학생 사회의 관성적인 운동 행태, 대처하는 국가의 경찰

7) 92년 경기대 총여학생회장 있었던 홍순희씨와의 인터뷰

8) 정신대 문제해결은 앞의 성폭력 문제해결과 같이 여학우들 자신의 생활 속으로부터 생겨나오는 요구는 아닙니다. 정신대 문제해결은 피해자 본인이지 아니건, 남성이지 여성이건간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해나가야만 하는 전민족적인 과제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민족이 자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고, 다시금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민족 구성원 모두가 민족이 자주권을 잃었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를 다시금 인식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전여대협 조국통일 사업 1차 제안서 (1992)

9) 페미니즘 영화라는 말이 익숙해졌고, 이를 표방하는 영화, 책, 그리고 이것이 '진짜'페미니즘적인가를 둘러싼 논쟁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대안의 블루', '델마와 루이스', '안나 이야기', '피아노', 등이 있다. 그리고 '페미니즘/영화/여성', '씨네-페미니즘, 대중영화 꼼꼼히 읽기',가 페미니즘 영화와 관련된 서적으로 많이 읽혔다.

문학에 있어서 90년대 들어서 특히 30대 여성작가의 활약이 많다. 공지영, 공선옥, 은희경, 신경숙등이 대표적이고 특히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모든 것을'은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영화와 연극으로도 제작되었다.

력의 구태의연함이 함께 있는 모순과 혼돈의 아이러니한 장이 90년대이다.

우선 여기서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데는 이 당시의 성정치 담론이 대학사회에 끼친 파장의 크기와 이 이후에 생겨나는 다른 방식의 여학생 조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 이슈와 변화의 양상 : 90년대 대학내 여성운동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성정치 담론이다. 성정치가 유행하게 된 시점은 아니 정확히 성정치라는 용어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94년 현실문화연구에서 제프리릭스의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와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라는 두 권의 책을 내놓으면서일 것이다. 이와 함께 서동진을 주축으로 성정치는 마치 이제까지의 여성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90년대 학생운동의 침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급진 정치의 미래인 것으로 선전되었다. 성정치 파장의 최고 정점에 서있었던 때가 바로 95년 연대에서의 '성정치 문화제'에서이다.¹⁰⁾ 물론 현재는 성정치의 거품이 빠졌다고들 한다. 여기서는 성정치 운동에 대한 평가는 접어두기로하고 이와 함께 시작 되었던 대학내 여성 운동의 방향성들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성정치운동이 당시 대안적 여성운동인 것처럼 이야기 되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에 자극받을 수 있는 학내 여성 운동 세력이었다. 성정치 운동에는 세축이 있었다. 동성애운동, 진보적 학생운동 세력, 여성운동 세력이다. 여성운동 세력에게 있어서는 성정치가 대학내 다른 운동권에 휘둘러서 부문 운동으로 치부되는 여성운동에 대해 그리고 NL계열 여학생 운동의 반페미니즘적 성향에 안티를 걸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여성주의 운동이라고 사고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96년부터 대학내에 중앙조직인 총여학생회와는 별개로 성정치 위원회나 여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룹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여성운동을 해왔던, 혹은 여성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자들에 의해서이다. 96년에 5월에 이대 대동제에서의 고대생 난동 사건이 있으면서 대학내에 성폭력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성정치 위원회나 여성위원회등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동안 '나뻘'-날아라 뻘뻘이-모임을 형성하였었다. 그 이후에 '들꽃'모임이라는 형태로 모인 모임에서는 각 학교에서 여학생 운동을 하고 있는 인자들이 소통할 수 있고, 여성주의적인 문화를 실현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심적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중심에 두고 형성되었다.¹¹⁾

10) "95년 연대에서 열린 성정치 문화제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이들은 '나를 강간하라'는 무시무시한 슬로건을 내걸었다.) 박을 내었고, 성정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강연회마다 사람들이 그득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 선거철을 맞은 대학가에서는 저마다 성정치위원회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침체된 학생운동이 성정치를 모약으로 회생하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불과 1년전의 이야기이다. 바로 작년까지 입단한 지식인들은 저마다 성정치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대우행이었다. 그저 유행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내용없는 것들은 아무리 히트를 쳐도 시기가 지나면 잊혀지기 쉽다."-석순권집위원회, '지금 이곳에서 성정치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석순』 13호, 1996

11) 개인적인 소견으로 성정치가 처음에 말바닥에 적응하기 힘든 상태로 소문만 무성한 채 들어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선 학내 여성 운동에, 그리고 그 외에도 자극제로 역할 할 수 있었던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연대같은 경우에 성정치위원회는 해소되고 여성주의 문화실현집단 'womb'으로 전환되어졌으며, 성정치에 쏟아졌던 에너지가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회고와 성정치를 다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성정치

들꽃 모임은 이제까지 전여대협 중심으로만 가능했던 여학생 조직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자리였다. 물론 이 모임은 대표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인자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었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 모임은 협의체라기 보다는 여학생조직의 운동가들의 에너지 충전소나 쉼터의 역할로 시작하였다. 허나 서여대협이나 전여대협이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들꽃모임으로 제기되는 일들이 많아졌다. 특히 고대생 난동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져있었으며, 들꽃 모임 테이블에서 각 학교의 성폭력 사건들이-많이-논의 되어진다. 이와 함께 그 테이블에서 97년에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가 생겨난다. 현재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여학생 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다.¹²⁾

96년부터 미인대회 반대 투쟁을 하는 등 문화적 실천의 고민을 해나가고 있는 것 또한 두드러진 변화의 양상이며, 다른 운동권 학생 정치 조직과의 선긋기를 위한 내부적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를 실현내겠다는 것이 큰 화두일 것이다.

문제점 : 이러한 양상은 역시 수도권내의 몇 개 학교에 국한되어진 것이기도 하다. 아직 지방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망의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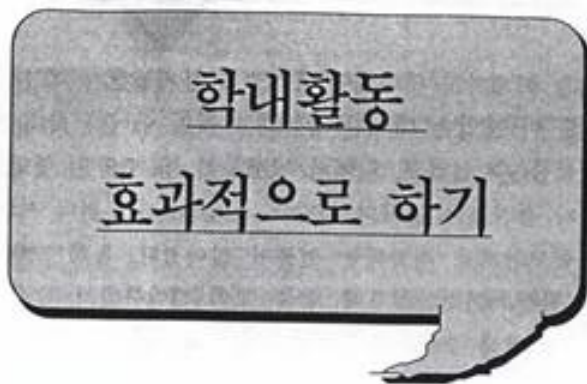
둘째로 여전히 다른 운동권과의 경계를 설정하기, 그리고 연대하기에 있어서 혼란과 갈등의 상태에 있다. 운동권 조직의 가부장주의적 성격, 그리고 끊임없이 여성운동을 부문운동으로 삼으려는 경향에 대한 민감함이 어느 측면에서는 연대 불가능한 적대적 전선이 되기도 한다.

현재 이 시기의 경우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매일 것이다.

IV. 결 론

이제까지 대학내 여성 운동사를 살펴 볼 때, 몇가지 문제들이 발견된다. 첫째, 대학내 여성 운동 성격 규정에 관해서이다. 대학이라는 데에 보다 방점을 찍는 '여학생 운동'으로서인가, 보다 여성에 착목할 것인가이다. 둘째, 70년대부터 줄곧 떠나지 않는 문제가 여성 운동의 독자성 확보이다. 셋째, 여성 운동의 조직 체계. 다른 운동권에 의해서 제기되어졌던 여성 운동 세력 내부에서 이견 총여학생회는 해체되어졌다가 재건되어지기도 하고, 다시 해체되어지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넷째, 여성 운동 주체들의 의식. 대학내 여성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을 다른 여학우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섯째, 대학내 여성 운동의 단절성. 앞에서 기술한 세 시기가 연속선 상에 있다기 보다는 단절의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 여섯째로는 대학 밖의 여성 운동과의 연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에 대한 관념적 과대 기대도, 당시 성정치에 대한 불편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지나친 비하도 부각되었다고 생각한다.
12) 이에 관해서 들꽃 모임에 소속해 있었던 김이승현과의 인터뷰에서 도움을 얻었다.



I. 골간 학생회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여학생회나 여위와 골간학생회와의 관계는 서로 공생관계라기보다는 항상 학생회가 우리단위에게 짐을 부과하고는 우리단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거나 그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그것에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너희 운동하는거 맞니?라고 쏙떡거리기 일쑤이다. 그런 학생회의 태도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 왔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대 너희 맘대로 생각해라. 하지만 내심 미안한 마음이 없는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과 우리일의 일정이 겹쳤을 때 어떻게 조정해야하나, 고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꿔생각해보자. 그들이 우리의 일에 동참하지 못해 미안해 한 적이 있는가? 여성운동과 어떻게 함께 해야할지 고민한 적이 있거나 한가?

가장 중요한 일은 사안이 생겼을 때 너희일은 너희가 알아서해라라는 태도에 대해 따끔히 혼내는 것이다. 사실, 이 일은 목소리 큰 사람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히 비난받아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이것은 비슷한 강도로 끊임없이 주입시켜야 할 일이다.

그들에게 이런 마인드가 형성된다면 그 다음일은 예전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 학생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학생회에 사안이 생겼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간다. 하지만 절대 거기서 끝나면 안된다. 골간학생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라인이다. 후에 우리가 배운만큼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 총여의 독자적인 판 뿐 아니라 총학단위의 행사를 기획할 경우 그 행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후에 그들이 스스로 제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 II. 학교와의 협상

일단 가장 중요한 일은 주요인물들(학생처장, 교무처장, 만약 있다면 여학생회 담당선생님, 그리고 여성학 담당 선생님, 자과의 학과장 등)과의 안면을 트는 일이다. 일을 하다보면 자연히 알게 되지만(주로 썩이) 미리 가서 인사를 해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 다음 일이 터졌을 때, 아주 귀찮게 들리볼는다. 예를 들면, 학부제가 되면서 유일한 여성학과목이 폐강될 뻔한 적이 있었다. 물론 여성학에 대해 '그거 여대에만 있는 거 아니냐'는 아주 당돌한 교무처장이 주역이 되었다. 여성학의 필요에 대한 자료를 교무처장 및 교육과정 개편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된 교수들 계속 만나고 전화를 해야한다. 그리고 경과를 계속해서 지켜보고(물론 이 자료만이 회의에 영향을 미칠지 그렇지 못할지는 모른다. 심지어 읽어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강제해 내야한다. 학내 성폭력 등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가능하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당위성을 뒷받침 할 만한 자료들을 가능한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 학교의 명예라는 부분을 담보로 잡는 것도 가능한 일.

## III. 어떤 일이 효율적인가

일련의 행사 사이클과 계속 감시하거나 전진시켜야 할 일에만 고민을 얼마나 하고있다.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는가. 이러한 고민은 바쁜 일정에 짹짹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다. 학내에서 우리가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물고늘어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단위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사는 없는가?

## IV. 단위 내 문제

학내 단위에서 활동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그 단위 인자 개개인의 고민에서부터, 한가지 사안에 대해 단위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까지 다양각색이다. 이 중 특히 학생회라는 공간안에 있을 경우, 썩, 부썩, 김부장, 김부 등 개인의 역할이 분배되고 그 책임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을 완전히 공유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런 내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썩이 아는 일은 모두 알아야 한다. ~~~~~  
정보는 자연스럽게 썩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회의라든지 굳이 회의가 아니라 학내에서 벌어지는 일의 내용들도 자연히 썩을 통하게된다. 대부분의 경우 회의를 통해 내용전달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 때때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있는 일일 수도 있다. 정보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다다음해를 생각한다면 썩단위에서 알고있는 사람들을 부원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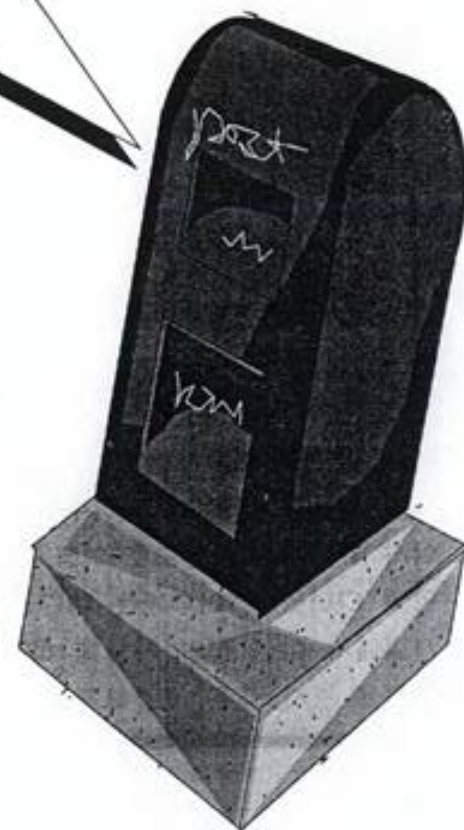
사람 만나기

어떻게 하면 우리단위에서 함께 할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일은 세미나겠지만, 위에 말한 대로 공간학생회의 라인이나 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들어 농활의 여성농반장같은 경우는 잘 활용하면 내부사람을 만들수도, 외부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주위를 잘 살펴보자. 내 주위에 그냥 서있는 후배, 친구, 동기. 그들중에 분명히 여성운동에 관심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과연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여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The two Fridas> 1939 Frida Kahlo

페미니스트 아트의 역사에서 독보적 존재인 프리다 카로. 멕시코 혁명 미술가인 디에고 리베라와의 결혼 파경 후에 그린 그림이다. 두명의 프리다는 심장이 일련체 상처받고 있으나 둘의 혈관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손을 맞잡고 강한 자애를 보여준다. 그러나 디에고의 사랑을 받던 전통적인 자신 (오른쪽의 전통의상을 입은)과는 달리 서구적인 근대교육을 받은 왼편의 프리다(서구의 드레스를 입은)는 손끝에 들고 있던 혈관 끝의 디에고를 가위로 잘라버려 피가 흐르고 있다.



98' 
한 판!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릴라 모임이다. 저열하고 편협함을 기본으로 해서 주 활동은 글쓰기를 통한 잡지 만들기이고,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게릴라식으로 움직이며 운동하는걸 지향한다.(딱은 멋있게 하지않 사식은 같이 모이는데 좋아서 수다떠다. 성직이 다들 더러워서 세상에 싸움걸거늘 즐기다 보니 게릴라란 명칭이 붙은 것 같군. --:)

98년
한 판!



돌꽃모임

역사야 창창하지만 그걸 여기서 세세히 설명하자면 지면도 딸리고... 간단히 말하자면 돌꽃은 96년에 고대생 난동사건을 계기로 여성주의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후 97년까지 여러 성폭력사건을 접수, 해결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문화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만들어보는 실험들이었다. 서로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름을 만들어준다던가 나이주의를 철폐한다던가 하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97년에는 낙산으로 여성주의 캠프를 매우 성공적으로, 기쁘게, 재미있게 다녀왔다. 이후에는 열린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프로젝트 모임으로 전화해서 다른 식의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은 여고생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조사, 혹은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돌꽃모임

96년 연대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이하 공대위)'에 대응하여 97년 3월 31일 9개 학교의 여성운동 단위들이 연대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가 구성되어 이 사건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를 벌였다. 이후 공대위 모임 속에서 각학교 여학생 단위들은 각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어려움과 한계라는 현실상의 학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꾸려졌다.

연대회의에는 현재 18개 학교의 여성단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학내의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일회적이고 사건중심적으로 해결되고, 가해자의 처벌이 사건의 종결인 듯 여겨져 왔다. 이속에서 똑같은 일에 반복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한계들에 대해서 공동의 고민들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모색으로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는 연구 활동을, 올해는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학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현재 「여성노동권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이하 여대연)」는 “역사적으로 여성은 일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 속에서 여성을 노동하지 않는 열등한 존재로 보는 모든 사회적 편견에 대처하고자 1998년 6월 25일에 발족한 단체이다. 어지껏 대학 내에서 여대생들은 사회적 진출을 고민할 때 여성노동자로서 집단적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본 조적에 모인 단체들은 대학 내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대표로서, 대학내 여성의 문제를 전면화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던 단위들이다. 본 단체는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악화되어가는 듯한 여대생/대졸여성의 상황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시급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여대연은 7개 대학교의 대표단위와,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98.7 현재). 구성학교 대표단위는 동덕여대 총학생회 산하 여성행동위원회, 서울여대 여성학회 날개달기,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이며, 이외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해당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다. 여대연은 현재 신규여성실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먹고 살기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위는 여대생 신규실업문제를 함께 풀고자 하는 대학 내 단위들에 열려 있는 개방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여성 노동권확보를 위한 대학생 연대 - 먹고 살기 대책위원회

* 주요업무:

- ① 고용시장 내 여성차별에 관한 정보수합 및 이에 대한 학내외 여론화 작업
- ② 고실업 사회로의 전이를 전제로 한 신규여성고용 창출 대안 모색
- ③ 여성노동권 운동 관련 연대 활동 (사안별, 이슈별)
- ④ 대졸(졸업예정) 여성 미취업자 실태조사 (프로젝트 제출 중)
- ⑤ 기타

98↑↑↑↑↑
한 판!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적 차이의 윤리실현을 위한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은 모든 모순이 극복되는, 현재와는 머나먼 어떠한 시공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여기에서,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억압들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바로 여기가 살맛나는 세상이다.

살맛은 얼기설기 얹혀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모순들에 문제제기하고, 차이와 연대를 뼈대로 하는 성적 차이의 윤리를 그 대안으로써 제시하면서 올해 4월 27일에 발족하였다. 현재 수원대 총여, 동덕여대 여성행동위, 덕성여대 꿈꾸는 달팽이, 산업대 여성모임(준), 연대 열세번째가 살맛을 이루고 있으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변화의 지점들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매달 소식지가 발간되며, 얼마 전에는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의제들을 다른 단위들과 논의하였던 '열린 세미나'를 열었다.

살맛은 일상적인 현실과의 부대낌 속에서 불기적인 권리인 여성 노동권,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체제 변혁적인 여성운동을 창출하기 위한 계단들을 쌓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살맛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어갈 것이다.

96년 연대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이하 공대위)'에 대응하여 97년 3월 31일 9개 학교의 여성운동 단위들이 연대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가 구성되어 이 사건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를 벌였다. 이후 공대위 모임 속에서 각 학교 여학생 단위들은 각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어려움과 한계라는 현실상의 학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꾸려졌다.

연대회의에는 현재 18개 학교의 여성단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학내의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일회적이고 사건중심적으로 해결되고, 가해자의 처벌이 사건의 종결인 듯 여겨져 왔다. 이속에서 똑같은 일에 반복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한계들에 대해서 공동의 고민들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모색으로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는 연구 활동을, 올해는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학칙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결성시부터 학내의 지난한 사건들에 대해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그·리·고

함께 하는 단위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 동국대 여성특별위원회 / 관악 여성 모임 연대 / 서울여대 날개달기 / 홍익대 총여학생회 /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 한국외국어대 왕산 총여학생회 /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 덕성여대 여성위원회 / 영남대 총여학생회 /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 국민대 총여학생회 /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 수원대 총여학생회 / 인천대 총여학생회 / 아주대 총여학생회 / 한양대 여성위원회

그리고 참가하는 단위들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 동국대 여성특별위원회 / 관악 여성 모임 연대 / 서울여대 날개달기 / 홍익대 총여학생회 /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 한국외국어대 왕산 총여학생회 /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 영남대 총여학생회 /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 국민대 총여학생회 /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 수원대 총여학생회 / 아주대 총여학생회 / 한양대 여성위원회 / 한림대 총여학생회 / 경북대 사회대 여학생회 / 제주대 총여학생회

98↑↑↑↑↑
한 판!



을 위해

유한 김벌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